

현재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많다고 우쭐대는 절대 아닙니다. 북한 동포들이 어느정도 어려움을 극복할때까지 합심해서 부처님의 무주상 보시 정신을 받들어 끝없이 베풀었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특히 보시행을 할 때 유의할 것은 내가 잘살고 내가 못사니까 도와준다는 식이 아닌 차등과 차별없이 북한 동포들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런 순수한 무주상 보시정신이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되면 50여년간 닫혀 있던 이념의 장벽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허물어질 것입니다.

불자들은 하심의 마음을 갖고 북한 동포들이 경제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체대비의 마음을 갖고 같은 민족, 같은 형제라는 사해동포적인 자세로 북한 동포들을 바로 봐야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자비행'을 실천하고자 강조하시는 고산스님.

— 전국 각지의 사찰을 다니시며

“마음의 벽 허물면 저절로 평화”

“풀 한포기 나와 똑같은 생명체”

법석을 통해 그동안 수행에서 얻은 신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회 때마다 대중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항상 8만4천가지 번뇌 망상안에 사로잡혀 산다고 했지요. 이중 망상, 욕심, 탐심, 수심 등 근본 4종심이 있는데 이를 잘 의지해 수행하면 능히 도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세상을 떠날때는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청화의 말을 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양심이요, 악한 사람도 이렇듯 대중들중에는 양심을 숙고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심에 가책되지 않는 일반 행하고 산다면 불자로서 입무를 다하는 삶이 되고 나아가서는 보살도를 행하는 길이요, 이것이 출가나 재가 수행자의 본 모습입니다.

또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마음을 아름답게 쓰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용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탐심'은 8만4천가지의 망상심들이 자주 생겨 마음 밖으로 빠져 나가는데 이것을 잘 다스려 현명하게 거두어 들이는 마음을 말하기도.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을 자주 돌아보면서 자기가 한 잘못된 행동을 참회하면서 마음을 닦아 수행하는 '수심'을 자주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와에 항상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도 잊지 않고 말합니다.

— 스님은 평생동안 석학사, 조계사, 쌍계사 등 유수의 사찰에서 대종 포교에 힘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 중생들의 무명을 깨치고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불자들은 늘 기원합니다. 스님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대종 포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지요.

▲ 대종포교라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널리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동안 조용한 산속에서 수행 정진을 통해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 포교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보다 많이 침체돼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시대는 급속히 변하고 있지요. 21세기를 맞아 선(禪)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불교가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에게 불교를 정확히 알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부터 30년전에 처음 포교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포교에 대한 경향이 전혀 없어 신도들에게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열심 사이에 놓여 있는 담장부터 허물라고 했습니다. 이런 법문을 한 뒤 나보고 미쳤으며 법문을 듣고 난 신도 보살들의 남편으로 부터 항의 전화가 빗발쳤지요. 집집마다 담장을 허물면 스님이 도둑을 책임질 거냐고 직접 찾아와 따지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집집마다 가라앉고 있는 담장만 허물면 마음까지도 열릴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대중들의 정신 문화를 바꿔 주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인데 눈앞에 보이는 형상에만 집착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생을 깨리 위해 있는 마음의 벽부터 허물면 담장을 허물지 않아도 해도 저절로 없어 버릴텐데 어리석은 주문을 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부터는 화합하며 마음문을 활짝 열라고 강조했지요. 이 시행착오를 통해 느낀 것은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충분히 생각 한 뒤 대중들이 실천 가능토록 현실에 맞게 지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렵거나 큰 기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대중 포교는 역효과가 나게 마련이지요. 오랜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신도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 가능한 포교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스님께서는 철저하게 계를 지키시며 수좌들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엄격하게 꾸짖으며 가르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불자를 역시 오계를 받지만 계를 받을 때면 평소에는 오계를 지킨다는 것조차 무감각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계를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들려주시지요.

▲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 불자들이 모든 계를 다 지키려고 하면 생활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할 때 판단 기준을 양심에 건두다 보면 그것이 곧 생활속에서 계를 지키는 효과를 가져 오지요.

예를 들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척 하고 싶지만 가만히 자신의 내면속에 들어 있는 양심에 반해 가책을 느낀다고 판단될 때는

“
무주상 보시는
내가 많이 가져서
이웃 돕는게 아닌
더불어 살기위해
내것 나누는 것
”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가 불자들이 계를 효과적으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자신만이 아는 양심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행위의 모든 판단 기준을 양심에 맡기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요. 그러다보면 계를 지킨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재가불자들이 지켜야 할 모든 계를 마음속에서 수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재가불자들이 수행에 임할때는 자기를 장식하고 있는 온갖 화장을 지워버리고 덜덜덜덜 된 상태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본연의 모습에서 자기를 철저히 성찰하려는 진실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속에 시달리고 세간에 물들어 지는 동안 자기 본성을 깨닫게 잊어 버리고 말지요. 진정한 자기 본성 깨달은 지름길은 자신을 장식하고 있는 모든 미망의 옷을 훌훌 벗고,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꾸준한 마음으로 자신을 항상 채찍질 하는 것이 참다운 종교인인 동시에 생판인의 자세입니다.

대담=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원범스님

아마도 대개의 스님들도 그러하겠지만 많은 도반들 중에 그래도 제일 기억나는 도반은 행자도반이라. 오랜 세월 정진하신 노스님을 계서도 “어려한 추억 속에 파리를 끌고 놓아 주지 않는 놈은 행자도반뿐” 이라고 말씀하셨다. 행자도반이 좋은 것은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생활이 초발심의 견고한 신심과 맞물려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

옛그때 관악산엔 다녀왔다. 아작은 푸르름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산 정상부터 암록달록 번져 가는 붉은 단풍의 채색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 수행의 '중풍'은 얼만큼 들었을까를 생각하니 얼굴이 단풍색갈만쯤이나 붉어진다. 이런 날은 절 이르게 떨어져 발밑에서 비스락 거리는 낙엽조차 서글프게 느껴지게 된다.

고개 들어 하늘을 본다. 푸른하늘위에 흰 구름이 떠있다. 거기에 운주암이 있고 내 그리운 도반의 모습도 보인다. 산이 높아 구름도 머물다 간다 하여 운주암이었던가.

수년간 비워져 있다가 어느 무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을 재판 끝에 겨우 찾아 원범스님이 많은 것이다. 워낙 산세가 험한 곳이라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살림살이었다. 산에서 땀을 구해다 장작을 때고, 땀방울 일구어 채소를 심고 좁은 길을 다듬어 큰길을 내고 관공서를 찾아다녀 겨우 도로를 내고... 그 모든 것을 그 혼자의 힘으로 일구어 낸 것이다. 법당에 비가 새고 식당겸 요사채는 다 허물어진 암자를 그는 최고의 기도도량으로 만들려고 완을 세웠다. 여기까지가 그의 할 일이라면서... 도반 스님의 거처는 법당 뒤 조그만 공방 하나다. 그곳에서 그는 불사준비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다. 운주암은 최고의 공경을 지닌, 내가 본 곳중 몇 안되는, 산세가 좋고 깎아지른 벼랑 위에 우뚝 솟은 멋진 도량이다. 이제 그곳에 목탁소리 드높고 불사준비 한창이라.

얼마 전 원범스님에게 전화한통을 받았다.

행자교육 기간중 우리는 유난히도 장난이 심했다. 엄격한 규율과 진중한 행자교육 기간중의 묵언조차도 우리의 장난을 막지 못했다.

화악산 절벽위 조그만 암자
겨울준비에 여념이 없다

승의사스님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눈썹 손짓으로 말을 주고받으며 장난을 치곤 했다. 어떤 날 내가 그의 발우에 천수물을 가득 담은 길들으로 내 발우를 찰라며 승승을 가득 부어 버린 일이 있었다. 천수물은 발우를 닦고 난 후 뒤통수를 할 수 있지만 승승은 뒤통수를 할 수가 없다. 다 마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반이 승승을 따른 발우가 내 발우가 아닌 옆 자리의 발우였다.

하필이면 그 많은 교육생중 가장 나이 많은 노행자 발우에 승승을 따른 것이었다. 절 집안에서 공양시간은 엄숙하다. 또한 묵언정진 중인 행자교육 기간중임이라.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며 인상쓰는 노행자의 맞은 편에는, 처음엔 “너도 당해 봐라”는 듯 눈웃음치며 독의의양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어쩔 줄 모르고 앉아 있었다. 필활에는 그 도반의 발우에 내가 재빨리 승승을 모두 넘겨줌으로써 그 도반은 위기를 모면했지만 휴식시간을 쟁이배를 흥겨우며 두고 보라며 복수를 다짐하던 그 도반의 얼굴이 오늘도 무척이나 그립다.

경복 창도 화악산 가파른 절벽위 조그만 암자에 그가 있다. 서울에 오기 전 운주암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공양주가 없어 리면을 끊어 주며 미안해하는 그에게 “스님은 여기서 평생 살아도 되겠네” 하고 넌지시 물어 보았더니 “무슨 소리, 중이 공부해야지, 난 도량장비 끝이면 걸망 때고 참선하러 떠날 거야. 대종과 같이 공부해야 중이지” 하며 정색을 하던 그다. 그가 운주암에 처음 온 것이 한 삼사 년쯤 되나보다, 처음 이 암자는 조계종 사찰임에도



비록 가건물이지만 요사 한 채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전에는 기도객이 와도 쉬 수 있는 거처 하나 없었다. 도반스님이 와도 쉬지를 못하고 처한잔 마시고 돌아서는 수밖에 없었다.

힘들게 올라와서 그냥 가는 도반에게 무척이나 미안했던지 “스님 이제 오면 며칠 쉬었다 가도 돼” 하면서 절결 못했다.

올 여름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원범스님은 무척 힘들었다고 했다. 비가 새는 법당, 무너진 언덕등을 보수하느라 밤잠도 설치다고 했다. 이제 화악산 골짜기에도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지만, 스님은 겨울준비에 여념이 없다. 눈이 오면 산중에 골짜기가 갇혀 있어 하기 때문이다. 겨울 찬기러며 법당보수며 땀 흘리며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누런 밀짚 모자 하나 늘려온 재 겹겹이 단 얼굴로 흰 이빨을 드러내며 웃던 스님. 이 가을날에는 또 얼마나 되었을까. 어렵사리 구한 짐자의 바위가 일년도 되지 않아 다 닳았으며 투덜대던 스님. 모쪼록 운주암 불사가 원력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하여 화악산 골짜기 골짜기마다 목탁소리, 기도소리 끊이지 않는 기도도량으로 거듭나리라.

※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이 책을 열면 새 하늘이 열린다!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체험의 신세계가 열린다

실명 구도소설

해인의 비밀

1氣의 회로를 찾아라

최현규 지음

312쪽 8,000원 (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전 3권 2권, 3권은 곧 출간됩니다

해인의 비밀

해인 (해인경의) '동인해인삼매중생인해인삼매'에서 나온 말로, 모든 번뇌가 끊어져 우주의 참모습이 그대로 몸 속에 비치는 경지를 말한다. 의상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그했다는 (해인도)는 '심바라밀도'라고도 불리는, 호종환우呼風喚雨와 이산호해移山航海 - 비담을 부르고 비를 내리며,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뛰어넘는 초능력인 달진 신비의 그림이라 전해진다. <거암유록>에는 '하늘 해인을 구하면 모두 극락에 들어간다'라 하되 '해인'은 구원이 있다.

콘스승 이 책속의 실존인물로, 소년 시절 해인의 수수께끼에 의문을 품어 평생의 탐구와 수련 끝에 마침내 해인의 비밀을 풀고, 우주의 신비를 꿰뚫는 氣의 회로를 열어 놀라운 도력으로 세상에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콘스승과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밟고 있는 모종의 엄청난 일들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이다.

氣회로 해인의 깨달음, 강력한 힘으로 작게는 한 인간의 운명과 절망, 크게는 현실세계와 역사까지 좌우하는 氣의 '지도', 氣회로의 놀라운 실재를 밝힌 이 책은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현상 등에 대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해답을 공개한다.

호종환우呼風喚雨 '비를 오게 했다면 멈출 수도 있겠지요. 우주와 하나가 된 자신을 믿으세요.' 콘스승의 말에 오호실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손바닥이 오르라치고 있었다. 주먹을 쥐자 비가 거짓말처럼 멈춰져 있었다.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다... 상식의 잣대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상천외한 사건들, 그러나 안 믿을 수도 없게 만드는 이 책의 미력 앞에서 당신은 삶이 통째로 바뀔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독자들의 직접 체험을 위한 신비의 '氣회로' 수록!
'콘스승'이 손수 마련한 '氣회로'를 통해 질병 치료와 氣체험,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하십시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서울시 종로구 현서동 171번지 현서빌딩, 책만 정신세계 출판(02)732-8115
양양점(033)466-2208, 천수점(037)742-7540, 대전점(042)489-9290, 전주점(063)246-4888, 대구점(053)943-4824, 부산점(051)294-8545, 미산점(055)248-5099